

'전주형 상생일자리' 상생협약안 의결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열고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양질 일자리 창출 모델 도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합을 기반으로 탄소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주형 상생일자리' 모델이 도출됐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2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주형 상생일자리' 상생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2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주형 상생일자리' 상생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근로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쟁력 요소에 기초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시는 그간 수차례의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탄소산업 분야의 상생협약(안)을 도출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전주형 상생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상생협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

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상생협약(안)에는 탄소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며 전주시민과 경영자, 노동자, 청년이 행복한 지역을 조

성하는 게 목적으로 △공공근로복지 기금 조성·운영 △탄소산업 협동조합 구성·운영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전주탄소산업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향후 시는 올 연말까지 노사민정 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전북도 등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위원회 구성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투자 세제 특례는 물론 근로복지 정주환경 개선 등에 있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생산한 광주형 일자리를 들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가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전주형 상생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사민정 모두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한옥마을서 조선시대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주한옥마을에서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6일과 27일 전주시민과 한옥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비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인 '꽃보다 선비-마궁(馬弓:말타기, 활쏘기) 체험, 전주동헌을 거닐다'를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전주의 선비정신을 계승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깨닫고, 마음 수양과 소중한 문화유산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바른 정신을 계승하는 사상견례(예절체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말타기와 국궁체험 △나 자신의 멋을 발견하는 전통한복 화보촬영 등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예로부터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자 덕목으로 알려진 6가지 기예(육예, 六藝)인 △예절 △음악 △화살쏘기 △말타기 △글쓰기 △생각하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참여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서배원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미래 핵심산업 각광 '바이오헬스' 미래전략포럼

전주시, 채수찬 카이스트 총장 자문역 초청 개최

바이오헬스 분야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공무원들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미래전략포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수찬 카이스트 총장 자문역 겸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을 초청해 미래전략포럼을 운영했다.

이날 채수찬 교수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한국 바이오 산업의 현실 △바이오에릭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혁신과 시스템의 바이오헬스 △바이오 투자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화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채 교수는 "바이오산업의 꽃인 신약 분야는 제품 개발에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바이오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했듯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 목표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집중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또 "바이오산업의 경우 전북이 후발주자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대와 약대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있는 만큼 전북의 바이오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 교수는 "바이오산업을 전주에서 집중 유치하면 전주를 향후 100년 이상을 지탱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바이오산업 R&D와 소프트웨어 산업 유치, 바이오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 양성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채 교수는 미래전략포럼단원들에게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업무 자세와 혁신 역량을 갖추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전주형 바이오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한 시는 채수찬 카이스트 총장 자문역 겸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주형 바이오헬스케어 추진단을 꾸려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가 현재 구상한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시민들에게 최첨단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풍부한 의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바이오헬스 분야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바이오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미래전략포럼을 통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미래전략포럼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은 본과를 구성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미래먹거리 산업 △청년 △탄소중립 △고령화 △농촌활성화 △ESG △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생 방안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아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공정관광 프로그램 첫선

시, 내달 5일까지 서학동 일원서 8회 운영

관광객도 즐겁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여행 프로그램이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첫선을 보인다.



전주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학동 일원에서 전주형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관광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이익이 지역 사회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공정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

관광객과 주민, 관광업계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디어 공모전과 세미나 등을 열어온 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서학동 예술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 첫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서학동 공정관광 프로그램은 1부인 서학동 골목길 역사산책과 2부인 서학동 실시간 동시판매(라이브 커머스)로 꾸며진다. 서학동 골목길 역사산책의 경우 한옥마을과 서학동을 이어주는 전

주천 남천교를 출발점으로 전주교대 한글광장과 초록바위, 싸전다리, 서학동 예술마을 등을 돌아보는 60분 코스다. 지역 청년 배우들과 서학동 주민들이 참여해 서학동의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학동 실시간 동시판매는 서학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복플러스센터에서 추진된다. 서학동에 입점해있는 공방 및 상점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시는 1회당 10명의 공정관광 참가자를 모집하며, 예매는 인터넷 사이트 11번가와 쿠팡, 네이버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주형 공정관광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잘했다'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사회복지·청소년 분야 1위'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가 전주시와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2021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2020년분)' 사회복지·청소년 분야에서 1위 평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는 시가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실적 및 전반적 운영상황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사회복지·청소년 분야 1위로 평가받으면서, 평가 대상 해(2017·2018·2021) 3회 연속 1위 평가를 받게 됐다.

센터는 △중기발전 로드맵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실적 증가 및 질적 성과 △유관

기관 네트워크 강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홍보매체의 다양성 및 홍보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23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평가'에서도 상·하반기 모두 만점을 획득했다.

청소년전화 1388모니터링 평가는 수신의 신속성, 상담 진행 및 응대 태도, 전문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센터는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무료 상담 전화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청소년전화 1388은 일상적인 고민 상담에서부터 학교 폭력, 가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자살·자해의 긴급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